

VMware on IBM Cloud:

VMware 고객이 IBM SoftLayer 자원으로 신규/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

개요

이 백서는 VMware 고객이 기존의 사내 구축형 VMware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IBM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이점을 누리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백서를 이해하려면, VMware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SoftLayer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백서의 목적은 VMware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의 IBM SoftLayer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VMware가 무엇입니까?

VMware는 가상화 부문의 업계 선두업체로서 전산, 스토리지, 네트워킹의 가상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VMware는 정적인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동적인 자원 풀로 바꾸어 IT 부서가 끊임없이 변하는 조직 요구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의 문제

정적 IT 인프라에서 동적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로 전환하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IT 부서는 SDDC를 통해 변화하는 조직 요구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IT에 대한 사용자와 경영진의 기대치가 높아지므로 IT는 항상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용자의 기대치



하드웨어 제약



계속 바뀌는 수요

가장 큰 문제는 IT 부서가 VMware 같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센터 자원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더라도, 여전히 하드웨어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내 구축형 데이터 센터는 서버 랙, 스토리지, 네트워킹에 필요한 바닥 면적이 제한됩니다. 하드웨어를 통합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전력과 쿨링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소매 부문의 작업 부하처럼 요구사항도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지만, 일년에 3~4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최대 처리량에 맞춰 사내 구축형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T 부서는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지, 아니면 작게 만들지 결정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사내 데이터 센터가 압도되었을 때 필요한 전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탄력성과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확장성에는 두둑한 비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다른 관리 인터페이스에 IT 직원을 배치해야 함).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획일적인 작업 부하 프로비저닝 접근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내 VMware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적용한 고객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IBM SoftLayer는 다릅니다.

탄력성을 위해 통제력을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한다고 해서 탄력성과 통제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BM SoftLayer와 함께 하면 조직에 필요한 확장성을 얻기 위해 VMware 인프라의 신뢰성과 성능을 맞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VMware 인프라를 관리해온 경험은 활용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클라우드에서 끝없이 확장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자산을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IBM SoftLayer는 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를 통합한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여, IT 업무에 대한 책을 완전히 새로 쓰지 않고도 조직에 필요한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미 있는 IT 부서를 바꾸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IBM SoftLayer를 통해 기존의 VMware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확장성 높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활용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프로비저닝한 자원을 포함하기 위해, 조직 전체를 넘어 인터넷에까지 이어져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자원의 가상 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풀에서 비용, 장소 또는 성능에 따라 작업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사용해온 동일한 톨로 이 모든 자원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VMware 인프라를 SoftLayer 클라우드로 확장하여 용량 확장, 재해 복구 및 백업, 데이터 센터 통합, 마이그레이션, 규제 준수, 보안, 개발, 테스트 및 연구소 교육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용량 확장

작업 부하를 VMware on IBM Cloud로 분산시켜 자원의 한계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데이터 센터 통합

기존 인프라를 중앙에서 관리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센터에 통합합니다.

마이그레이션

RackWare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기존의 이기종 환경을 IBM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는 고충을 없애주는 유연하고 보안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개발, 테스트 및 연구소 교육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테스트 주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 확장성, 보안을 VMware on IBM Cloud를 통해 확보하십시오.

규제 준수

VMware on IBM Cloud는 규제 준수 대상인 작업 부하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해 복구 및 백업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은 NetApp®의 AltaVault® 애플라이언스와 IBM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 관리, 검색을 지원합니다.

보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작업을 옮기는 기업들은 기업의 소유가 아닌 플랫폼에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이를 서버에서 서버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보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VMware가 사내 구축형 데이터 센터를 바꾼 것처럼 IBM SoftLayer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한다는 것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조직의 이익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 센터 관리 기술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작업을 가상화해야 했지만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통제권(혹은 선택권)은 갖지 못했습니다.

IBM SoftLayer는, 가상 서버나 실제 물리 서버(BareMetal)의 공유 또는 전용 환경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이를 바꾸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함으로써 철저한 통제와 완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VMware 고객의 경우 IBM SoftLayer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VMware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인프라 관리 모델을 바꾸지 않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모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를 철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 하십니까?

IBM SoftLayer는 프로비저닝과 유지관리 업무를 단순화하는 종합 관리 툴을 제공하여 기반 인프라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조직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보안 자원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마치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듯, 조직의 요구사항에 맞게 클라우드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IBM SoftLayer에서 VMware 환경을 운영하면, 이 두 가지 인프라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VMware는 작업의 가상 자원을 감독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IBM SoftLayer는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 인프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IBM SoftLayer에서는 하드웨어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한밤중에 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IBM SoftLayer가 VMware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주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 위상(Global Reach)

조직이 하나의 도시에 있든, 전 세계에 뻗어 있든 IBM SoftLayer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BM SoftLayer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북미, 남미, 유럽, 인도, 아시아, 호주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내야 하는 어려움 없이도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조직이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 나갈 때, IBM SoftLayer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나 컴퓨터실을 구축해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배치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IBM SoftLayer의 데이터 센터는 확장성, 비즈니스 지속성, 데이터 주권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기존의 VMware 인프라와 IT 직원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직의 요구에 따라 클러스터를 한 곳에 집중시킬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분산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그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IBM SoftLayer의 Looking Glass 포털 (<http://lg.softlayer.com>)에서 데이터 센터 간 지연 정보를 상세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관리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을 활용하면서 현재의 통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VMware 관리 제어판으로 쉽고, 빠르게 기존 VMware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하거나 어떤 SoftLayer 데이터 센터로든 이전할 수 있습니다.

IBM SoftLayer에 VMware 인프라를 구축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고 기존 사내 구축형 VMware 환경에 구축한 동일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 준수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신속한 배치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클라우드의 최대 자산 중 하나인 “속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점은 전체 VMware 스택을 배치할 때도 적용됩니다. 컴퓨팅 가상화에서 스토리지와 네트워킹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VMware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필요할 때마다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781-6900 / 7800
ibm.com/kr/startcloud